

6/8/25

설교 제목: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시드기야 왕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예레미야 38 장 1-28 절

(렘 38:1) 맛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렘 38: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렘 38: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렘 38:4)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렘 38:5)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렘 38:6)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렘 38:7)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렘 38: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렘 38:9)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렘 38:10)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렘 38:11)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형짚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렘 38:12)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형짚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렘:38:13)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렘 38:14)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렘 38: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렘 38:16)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렘 38:1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렘 38:18)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렘 38: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렘 38:20)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렘 38:21)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렘 38:22)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렘 38:23)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렘 38: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렘 38:25)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렘 38:26)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렘 38:27)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렘 38: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유다 백성들과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렘 38:1) 맛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렘 38: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렘 38: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있어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에 머무는 것은 자랑이며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고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 성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 성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세지가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왕이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이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게 하려한 것입니다.

(렘 38:4)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렘 38:5)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렘 38:6)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여호와권을 잡아 가고 대신 세운 왕입니다.

등극 자체가 이미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유다 백성 대다수는 여호와권 왕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여 그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듯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밀하게 물으면서도 고관들 눈치를 보느라 그를 희생시킵니다.

반면 유대인도 아닌 구스인 왕궁 내시 에벳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왕을 찾아와 예레미야의 구출을 호소합니다.

(렘 38:7)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렘 38: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렘 38:9)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렘 38:10)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의 청원을 받은 시드기야 왕은 당장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왕의 명을 받은 에벳멜렉은 곧바로 사람들의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냅니다.

(렘 38:11)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형겔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렘 38:12)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형겔과 낡은 옷을 당신의 거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렘:38:13)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 일로 에벳멜렉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렘 39:15)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렘 39:16)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 앞에 이루어라

(렘 39: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렘 39: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에서 구출된 예레미야를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묻습니다.

(렘 38:14)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렘 38: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렘 38:16)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나약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주장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보장 받고자 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생명을 보장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 사항을 어겼을 경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맹세한 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 받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의 순종 여부에 왕과 왕의 가족과 이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렘 38:1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렘 38:18)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왕과 왕의 가족과 이 성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자신은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나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렘 38: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유우부단하였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관들을 두려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할 때 받게 될 참혹한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렘 38:20)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렘 38:21)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렘 38:22)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꺾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렘 38:23)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혀 갈 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들과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복국 왕이 패전국 궁녀들을 전부 취하는 것은 당시 상례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아 예레미야에게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로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대화 내용을 캐물을 것에 대비해 답변할 말까지 알려 줍니다.
(렘 38: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렘 38:25)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스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스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렘 38:26)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렘 38:27)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당시 대부분의 고관들은 친 애굽주의자 내지는 반 바벨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좇아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어도 그들이 혹여 자신을 살해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예상대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왕과의 대화 내용을 묻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미리 알려준대로 대답함으로 일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렘 38: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왕과 왕의 가족과 성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왕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예루살렘은 불태워졌으며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